

# 조선시대 사대부 남성의 한자-한글 서간서체의 관련성 고찰

김성일, 송시열, 김정희 서간을 대상으로

박정숙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교수, 동양미학(한글서예) 전공

pjssn@hanmail.net

- I. 머리말
- II. 사대부 한글서간의 서체적 특징
- III. 사대부 한자-한글 서체의 조형적 관련성
- IV. 맺음말

이 논문은 「한글서예의 세계 문화사적 가치」를 주제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특별기획 학술대회(2022. 8.27, 전북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I. 머리말

---

### 1. 연구의 필요성

“서도(書道)란 본시 두 이치가 없으니 [...] 두 솜씨의 글씨는 쓸 수 없으니 행여 양찰해 주소서”.<sup>1</sup>

“나의 글씨는 비록 말할 것도 못 되지만, 70년 동안에 걸쳐 10개의 버루를 갈아 닳게 했고 천여 자루의 붓을 다 닳게 했으나 한 번도 간찰의 법칙을 익힌 적이 없어 실로 간찰에 한 가지 체식이 따로 있는 줄을 모릅니다.”<sup>2</sup>

위의 글은 추사 선생이 어느 지인에게 보낸 편지<sup>3</sup>의 구절이다. 그 뜻은 붓으로 쓰는 어떤 글씨도 특별한 방식이나 법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추사 선생의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한글과 한자의 필법이 정해져 있거나 특별한 서법이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조선시대의 선비 즉 소위 지식계층은 한자 문화에 익숙한 관료나 선비들과는 한문으로 소통하는 한편, 부인이나 한문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언문을 사용한 편지글을 쓰곤 했다. 지금까지 전해오는 사대부가 선비들이 쓴 대표적인 한글서간은 선조 6년 송강 정철의 서간[1573~1598, 3월12일], 선조 25년 부인에게 쓴 학봉 김성일의 서간[1592년 12월 24일], 미수 허목[1595~1682]의 서간, 우암 송시열의 서간[1671~1679], 망우당 곽재우의

---

1 김정희, 『완당선생전집』 제5권 「서독」, 한국문집총간. “承覽簡筆 不覺噴筍滿案 書道本無二致 今使右軍大令 作青李來禽黃甘爲群諸帖 另爲一法 異於蘭亭十三行 兩公非徒無以下手 必呵呵大笑 僕於書無可稱 實不敢作兩手書 幸察之”

2 위의 자료. “七十年 磨穿十研 禿盡千毫 未嘗一習簡札法 實不知簡札另有一體式”

3 간찰=서간=편지=언간, 인용이나 쓰임에 따라 약간 다르나 이 논문에서는 주로 서간이라 칭한다.

종질인 곽주의 서간[1590~1652], 다산 정약용이 70세 때 자형에게 쓴 한자서간 부분에 삽입된 한글문장[1831년 3월]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추사 김정희의 40여 건의 한글서간과 그의 부친 김노경의 한글서간 등도 있다. 이러한 조선시대 사대부의 한글서간은 서체의 미감이 뛰어난 작품이 다수 남아 있지만 그들이 남긴 한글서간의 서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학자 혹은 예술가가 지향하는 세계는 그들이 남긴 작품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한 개인이 시에서 드러낸 미감과 예술세계는 서예에서도 드러나고, 만약 그가 그림을 그렸다면 그림에서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시에서는 A라는 미감과 예술성을 표현한 사람이 서예에서는 엉뚱하게 B라는 미감과 예술세계를 표현하고, 그림에서는 더 엉뚱하게 C나 D라는 미감과 예술세계를 표현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조선시대 사대부의 한자서간 글씨에 드러난 미감이나 예술성은 그 지향점이 유사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글서간 서체의 미감과 예술성을 그들의 한자 서예 작품(서간 포함)의 예술성과 비교 고찰해 보면서, 한자 서예의 예술성이 한글 서예에 적용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과 고찰은 앞으로 한글 서예 창작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도움과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대표 명필 중에서 한글서간을 남긴 사대부로서, 16세기의 김성일, 17세기의 송시열, 18세기의 추사 김정희의 대표적 한자서간의 서체를 분석하여 그들의 한글서간 서체와 비교 검토하여 그 서예적 관련성을 밝히려 한다.

## 2. 서간 서체의 예술성

서간은 의도적인 치장이나 마음의 꾸밈이 배제된 진실한 인간의 품모에 바탕을 둔 서예 필치를 접할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서예미학적 특질이나 심미성(審美性) 또한 일반 서예작품에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에 글씨체의 시대적 변천 과정도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추사 서간 서체의 변천과 특징을 세밀히 살펴보면 추사 행·초서의 특징이 파악되고, 한자서간 서체의 필의(筆意)가 내재된 한글서간 서체의 특징도 아울러 비교, 연구할 수 있다고 본다.

『완당평전』을 저술한 유홍준은 ‘추사가 행초서로 자연스럽게 쓴 한자와 한글 서간서체는 추사의 행초서 작품의 서체를 연구하는 데 큰 단초(端初)를 제공한다’<sup>4</sup>고 하였고, 초서체 연구가인 심영환은 ‘한자 서간 서체의 예술성에 대하여 서간에 쓰인 서체는 개인의 서예미학을 총체적으로 향수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다’<sup>5</sup>고 하였다.

이처럼 서예가의 서간이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례는 적지 않은데, 대표적으로 행초서의 만고(萬古)의 규범(規範)으로 알려진 왕희지의 「십칠첩(十七帖)」, 「상란첩(喪亂帖)」, 안진경의 「제질고(祭姪考)」, 양응식의 「구화첩(韭花帖)」은 모두 편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창 오세창이 조선시대 한자서간을 선집하여 편찬한 『근묵(槿墨)』에 수록된 수많은 한자서간과 조선시대 사대부 남성들이 쓴 김성일, 송시열, 김정희의 한글서간 등이 있다.

---

4 유홍준, 『완당평전』 1(학고재, 2002), 209쪽. “한 서예가의 글씨가 변해가는 과정은 무엇보다도 편지 글씨와 해서작품에 나타난다. 편지 글씨란 그가 작품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고 쓴 것이기 때문에 그 서예가의 필법이 거짓 없이 드러나며 ……”

5 심영환, 『조선시대 고문서 초서체 연구』((주)소와당, 2008), 31쪽.

서에 작품의 한 획 한 획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며 그 속에 사상이 내재해 있다<sup>6</sup>는 것은 서간 서체에서 서예술의 의의와 심미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요소가 함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간의 서체를 조명하고 규명하는 일은 학문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매우 중요하면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 3. 사대부 한글서간의 개관

한글서간 사용례는 문종 1년(1451) 양녕대군(讓寧大君) 이제(李祹)가 언문으로써 짧은 편지를 써서 아뢰었다<sup>7</sup>는 것이 최초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물은 전하지 않고 현전하는 사대부 한글서간으로 가장 이른 것은 <순천김씨묘출토간찰>에 포함된 김훈과 그의 아들인 김여홀, 김여물, 사위인 채무이의 한글서간이다.<sup>8</sup> 이들 한글서간이 쓰여진 시기는 임진왜란 전 16세기 중후반으로 총 53건의 남성 한글서간이 아내, 딸, 여자 동기, 며느리에게 보내진 것으로 보아 이 시기 사대부 계층의 남성 한글서간이 이미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편화는 16세기 말 송강 정철, 학봉 김성일, 양호당 이덕열 등의 한글서간에서도 확인된다. 17세기에 이르면 동춘당 송준길(家), 나은 이동표가, 나주임씨 임창계가, 제월당 송규렴가, 유시정가, 우암 송시열가 등 더 다양한 사대부 집안의 남성 한글서간이 존재하며,

6 서경요, 「秋史의 學問과 藝術」, 『書通』(東方硏書會, 秋冬, 1974), 4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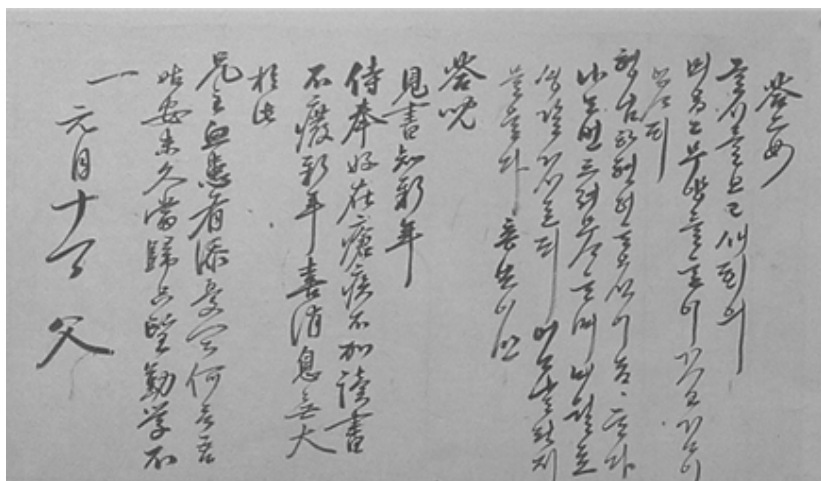
7 『문종실록』 1년 신미(1451) 11월 17일(신해).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祹)가 언문(諺文)으로써 짧은 편지를 써서 아뢰니, 그 뜻은 김경재(金敬哉)로 하여금 상경(上京)하여 그 딸을 시집보내도록 하기를 청하는 것이었다. 정부(政府)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8 가장 이른 것으로 15세기 말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창맹씨묘출토 「나신결언간」이 있으나(배영환(2012)) 나신결이 무관인 점을 고려하였다.

18, 19세기에는 추사가, 홍은위 정재화가 등으로 이어지는 남성 한글서간이 발견된다. 이는 현전하는 이들 사대부들의 한글서간은 당시 보편화된 한글서간의 일부일 뿐, 대부분의 사대부 집안에서 한글서간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9</sup>

현전하는 사대부 남성의 한글서간을 정리한 건수는 616건으로 알려져 있다.<sup>10</sup> 사대부가 남성은 기본적으로 남성에게는 주로 한자서간을 여성에게는 한글서간을 보냈지만 은진송씨 늑천 송명흠 가문의 소장 편지(도1)에서와 같이 아들딸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한자와 한글을 아울러 쓰기도 했다.<sup>11</sup> 딸에게 쓴 한글과 아들에게 쓴 한자서간의 장법은 어떠한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배자의 자유로운 곡선이 행을 이루고, 문자의 필획 역시 조화를 이루는 멋을 보여 한글과 한자서간의 장법 또한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 9 한글서간은 초기에는 주로 무덤에서 출토되었지만 17세기 이후 한글서간이 양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유명 가문에서는 언간첩의 형태로 전하여진 것으로 보아 후대로 갈수록 사대부가의 한글서간 이용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 10 사대부가 남성의 한글서간 개황에 관련된 자료는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래호의 저서 『조선시대 언간을 통해 본 사대부가 남성의 삶』에서 자세하게 볼 수 있다. 건수는 18쪽을 인용하였다.
- 11 이러한 사례는 대동법을 실시한 김육이 아들에게 보낸 서간에 한자와 한글을 함께 써 보낸 경우, 성대중이 아내와 아들이 함께 읽으려면서 한 장의 편지지에 한글과 한자로 각각 쓰기도 했다. 송규렴은 며느리에게 보내는 한글서간에 글공부를 하는 손자를 위해 한자 몇 줄을 적어 넣기도 하였고, 정약용은 자형에게 보낸 한자편지에 누님을 위하여 한글 몇 줄을 첨언하여 보낸 예도 있다.



도1-은진 송씨 늑천가 송형규 기증, 아들과 딸에게 쓴 편지, 대전역사박물관 소장

## Ⅱ. 사대부 한글서간의 서체적 특징

사대부 남성의 한글서간 서체에 대한 장법, 결구, 용필 등의 면밀한 검토는 한글의 서체미를 재확인하고 한글 서체의 다양한 조형적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II장에서 사대부 남성이 쓴 한글서간의 장법은 조선시대 명필 16세기의 김성일, 17세기의 송시열, 18, 19세기의 김정희 서간에서 분석하였으며, 결구, 용필의 특징 분석은 전시기에 걸쳐 남성 사대부 7인의 서간에서 단독문자의 결구, 용필 특징 등을 찾아 사대부 남성의 한글서간 서체의 예술적 가치를 탐색하였다.

# 1. 사대부 남성 한글서간 문장의 장법

표1-조선후기 3대 명필가 한글서간의 장법 특징 분석대상 개황표

시대	필사자	필사시기	구분	수신자	서체	배열 형식	배열수	비고
16 세기	김성일 1538~1593	1592.12.24. 55세	한글서간	부인에게	흘림	세로	32.0×38.0cm 18행	-
17 세기	송시열 1607~1689	1679.2.5. 73세	한글서간	제자 미망인	흘림	세로	29.5×62.3cm 32행	도판 후반부 19행
18,19 세기	김정희 1786~1856	1818.7월晦日. 33세	한글서간	부인에게	흘림	세로	24×44.3cm 30행	봉투 24.2×5.4

\* 한자-한글서간의 문장 격식 및 배열 특징 분석은 필사자 1인별 한자-한글편지 1편씩을 선정하였음.

## 1) 사대부 남성 3인의 한글서간 배행·배자(도2 참조)

사대부 남성 3인의 한글서간 배자 특징을 1500년대에 쓴 김성일의 서간, 1600년대에 쓴 송시열의 서간, 1700~1800년대에 쓴 김정희의 서간 등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사대부 남성 서간의 배행 배자는 여성의 배행·배자가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자 행초서의 필의를 살려 자유분방한 배행·배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1500년대의 학봉 김성일의 한글서간은 상단에 ‘김 [手決]이라 써여 있고 봉투 겉봉에는 기내서우감사택(寄內書 右監司宅) 안동 납실 석어 이미 석이 이근 석류 이십개(石魚 二尾 石茸 二斤 石榴 廿介)의 물명과 수결이 보인다. 문장의 배자는 많이 흘려 썼거나 자간 연결은 하지 않아 단자형의 흘림을 볼 수 있다. 한 자 정도 올려 적는 극행(極行) 형식은 장모를 높이기 위함이며, ‘거니와’, ‘뭇흘쇠’, ‘뭇흔뇌’ 등에서 뗏을 부리듯 길게 내려 쓴 글씨체에서 조선시대 선비 글씨의 유려함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전체 장법에서 오히려 한글의 간단한 획을 늘이고 줄여 흐름이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본다. 학봉의 한글서간은 이런 측면에서 한자서간보다 훨씬 더 개성이 발휘되어 높은 예술적 형상을 구현해 내고 있다. 특히 18행 전체에서 단 한 행도 같지 않은 장법을 보이는데 작은 지면(紙面) 위에 작은 글씨로 여러 행을 쓸 경우 비교적 가지런히 써도 전체적인 조화가 쉽지 않은 법인데, 학봉의 한글서간에서는 매행에서 춤을 추는 듯한 동세를 감지할 수 있다. 아울러 글자와 글자, 행과 행 사이에 나타나는 필세의 유동적 흐름은 ‘어긋나지만 침범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되 일률적이지 않게[違而不犯 和而不同]’라는 예술 경지에 맞닿아 있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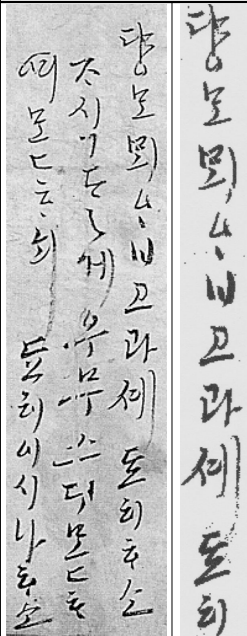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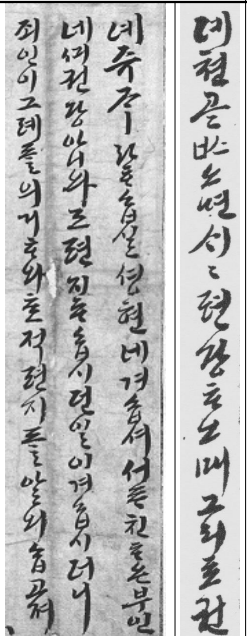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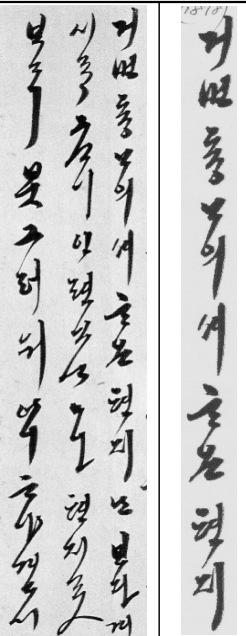
1600년대의 송시열이 쓴 서간의 규격은 가로 62.3cm, 세로 29.3cm로 일반적인 서간보다 긴 편이며, 글씨는 단면에 썼다. 한자 서간에서 볼 수 있는 힘찬 서체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배자하고 흘림이 심하지 않아 부드럽고 정겹다. 문자의 행간 배치는 일정한 간격을 두었으나 세로획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다. 글자의 배자는 전체 32행으로 총 618자이다. 32행의 마지막 줄에는 쓴 시기와 현재 유배중임을 뜻하는 ‘죄인’과 이름 송시열을 다른 글자보다 아주 작게 썼다. 이 한글서간의 글씨는 전체적으로 문자 간의 대소장단 표현이 조화롭고 중봉 혹은 편봉의 융합적 필세로 운필하여 중후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우암이 73세인 노년기에 쓴 편지로서, 연면체를 지양하고 또박 또박 써서 읽기 쉽게 한 점, 대두, 이행, 격간 등 서식을 갖춘 점 등을 볼 때 배려를 담아 예의를 갖추어 정성들여 쓴 것임을 알 수 있다.<sup>13</sup>

김정희 한글서간의 배열-배자방법을 알아보면, 본문의 본행 수는 17행,

12 장지훈, 「학봉 김성일의 서예세계」, 『서예학연구』 제35호(2019), 137쪽.

13 박정숙, 『조선의 한글편지』(도서출판다운샘, 2017), 176쪽.

본문 오른쪽의 측행 5행 등 모두 22행으로 배행하여 세로쓰기 배자 방법이다. 이러한 배행 형식은 본행-측행의 배행 순서로 쓰는 한자서간의 포치법(布置法)과 같다. 서간의 지면 배열을 보면 본행 17개 행은 각행의 첫 문자의 상단 부분을 수평으로 가지런히 맞추었고, 측행 5개 행도 본행 첫 문자의 상단 부분에서 두 자 정도 아래에 배자하여 썼으며, 본행과 측행의 아래 부분도 가지런히 배자하였다. 관지 부분을 ‘칠월회일’, ‘당회’라고 ‘회·일’만 연결하여 쓰고 나머지는 띄어서 측행 글자보다도 조금 더 작게 썼다.<sup>14</sup>

시기	1500년대	1600년대	1700~1800년대
	1592년	1671년	1818년
배자 문구			
	김성일	송시열	김정희

도2-사대부 남성의 서간 문구 배행·배자방법 분석 비교도

14 박정숙, 「추사 김정희 서간의 서예미학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2) 사대부 남성 3인의 한글서간 연결문자(도3)

김성일 한글서간 연결문자의 표현방법은 연결서선 굵기를 가늘게 써서 점획의 부분별 차이가 나지 않으며, 글자의 굵기와 비슷하게 가는 곡선형으로 표현하였다. 단절형의 흘림이나 전체적 흐름은 리듬감이 뛰어나 연결 어휘 ‘분별마소’에서 ‘분’에서 다음 획 ‘별’로 연결하는 필단의련의 멋은 학봉 한글 서체의 백미다. 송시열 서간 연결문자의 표현방법은 문자의 연결마다 조세 강약과 방향의 다양성 표현에서 강한 필력을 보여준다. 김정희 한글서간 연결문자의 표현방법은 변화무쌍한 자형을 구사하여 자유자재로 표현되었으며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왼쪽 사선으로 운필된 연결선은 생동감이 넘친다. 결구도 쓰는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하며, 획의 크기도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대소의 차이가 나며, 자형 또한 일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지 않다.

필사자	김성일		송시열		김정희	
연결문자						

도3-사대부 남성의 한글서간 연결문자(장법) 분석 비교도

### 3) 사대부 남성 3인의 한글서간 어휘 연결문자의 연결성 특징(도4)

사대부 남성의 한글서간에서 3인의 문장에 나오는 어휘 중 2자 연결문자를 선정 집자하여 분석하였다. 한글서간 문장에 나타나는 연결문자의 유형은 추사서간의 예로 2행 '오릭', 18행 '브딕', 20행 '도편' 등 하나의 단어는 아니지만 앞의 획수가 적은 글자는 뒤의 획수가 많은 글자보다 작게 썼다. 추사의 연결문자는 제1행의 '그스이', 측행 제18행의 '이리', 제1행에 '흑인' '편이', '시되', 제2행에 '지오릭', '못부', '치오니' 등 많이 보인다.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세로-세로형 연결문자와 가로-가로형 연결문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1) 세로-세로형 연결문자

상하 위치로 연결하여 쓴 문자 중 첫 자의 중성이 종모음으로 연결되는 연결문자를 선택하여 배자방법의 특징과 결구방법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남성 사대부의 2자 연결은 연결선을 강하게 하였다. 김성일은 단자결구의 흘림으로 필단의연(筆斷意連)의 필세로 개성 있는 1분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으며, 송시열, 김정희는 기본 획보다 더 강하게 연결성을 나타내어 글씨에서도 그들의 강한 성품을 엿볼 수 있다.

#### (2) 가로-가로형 연결문자

김성일과 송시열은 단절형으로 연결성이 없으나 김정희는 가로와 가로의 문자도 모두 연결하여 기맥이 연결되며 우측 끝에서 왼쪽으로 끌어오는 활시위 같은 연결획에서 추사만의 예술성이 돋보인다. 정리하면 조선시대 사대부 남성의 한글서간 연결문자는 내용에 따라 연결하지 않고 호흡에 따라, 혹은 문자의 크기에 따라 혹은 붓이 머금고 있는 먹의 양에 따라 달리하여 소밀-대소 표현이 뛰어나다.

사대부 남성	세로-세로 연결			가로-가로 연결		
						
	김성일 1592	송시열 1679	김정희 1843	김성일	송시열	김정희

도4-사대부 남성 3인의 한글서간 2자 연결문자 분석 비교도

## 2. 사대부 남성 한글서간 문자의 결구

사대부 남성 한글서간 문자의 결구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위에서 논의된 3인에서 좀 더 확장하여 6~7인의 조선시대 사대부 남성이 쓴 한글서간의 결구 특징을 알아보기로 한다.<sup>15</sup>

### 1) 음절 종모음자 ‘가-나-마-시’(도5)

사대부 남성의 한글서간에 나타나는 좌우위치의 초중성합자인 ‘가-나-마-시’자의 결구적 특징은 도5와 같다. 사대부 남성 7인이 쓴 ‘가’ 자는 채무이와 김정희를 제외하고는 문자의 외형에서 세로 폭을 작게 하였으며 중성 ‘ㅏ’ 부분 가로 점획을 길고 강하게 표현하여 가로 장방형의 자형으로 많이 썼다. 초성 ‘ㄱ’의 가로획 길이에 따라 세로획이 짧고 길게 표현되었다. 남성의 서간글씨는 한자서체의 외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김노경, 김정희 부자의 ‘가’ 모양의 획형이 거의 같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서간글씨는 가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나’를 쓸 때는 남성들의 필사 습관인지 거의 필세회고의 필법이 사용되었고 그것은 결국 길게 늘이지

15 II-2.3절은 사대부 남성의 한글편지를 3인으로 제한된 연구로 인해 생기는 의문점을 해소하고자 16, 17, 18세기의 대표적 명필가 7인의 결구 특징을 분석하였다.

않고 납작하게 쓰는 형태로 표현되었다. ‘마’는 한자의 ‘口’ 자형과 거의 같은 형태를 구사하였으며 김정희는 궁체의 획을 구사하였다. 사대부들의 ‘마’자 외형은 시기의 특징은 볼 수 없고 한자서체의 외형과 비슷한 정방형임을 알 수 있다. ‘시’는 채무이, 김성일의 자형이 유사하며, 나머지 5인은 모두 ‘ㅅ’의 1획과 2획을 연결하여 표현하고 있다. ‘시’의 형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세로획 ‘丨’의 획형이 달라지고, 이어지는 정도에 따라 세로획형이 달라짐을 볼 수 있는데 폭이 큰 글자는 이동표의 ‘시’ 자이고, 세로폭이 작은 글자는 송시열의 ‘시’ 자로 볼 수 있다. ‘시’ 자의 세로폭은 같은 시대 인물이 쓴 글씨라도 필사자에 따라 개성 있게 표현되었다. 초성 ‘ㅅ’의 중성 ‘丨’에 대한 상하위치를 보면 대체로 ‘丨’ 부분 중간보다 위쪽에 배회하였으며 ‘丨’의 처음-중간-끝 부분의 획형도 뭉툭하거나 뽀족하게 여러 형태로 보여. 중성 모음 ‘ㅣ’의 세로획의 굵기, 굵기, 기울기 등도 필사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들이 쓴 ‘ㅅ’는 조선초기 채무이부터 조선후기 김정희에 이르기까지 거의 필세회고의 획형을 즐겨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채무이 1550	김성일 1592	곽주 1590	이동표 1677	송시열 1671	김노경 1791	김정희 1818
사대부 남성	가							
	나							
	마							
	시							

도5-사대부 남성 한글서간의 ‘가-나-마-시’ 자의 결구 비교도

## 2) 음절 횡모음합자 ‘고-오-우’(도6)

사대부 남성 7인이 쓴 ‘고’ 자는 초성 자음과 중성 모음을 한 번에 이어 쓰고 있으며 자형은 거의 유사하다. 초성 ‘ㄱ’의 획형을 각이 생긴 형태로 나타낸 김성일, 곽주, 송시열이 있고, 나머지 4인은 곡선형으로 표현하였다. ‘ㄱ’의 획형은 대부분 1획으로 처리하였다. 사대부 남성 7인 중 6인은 ‘오’ 자의 자형을 초성 ‘ㅇ’의 윗부분을 열리게 나타내었고, ‘ㅇ’과 중성 ‘ㅛ’를 이어서 썼는데, 김성일은 ‘ㅇ’과 ‘ㅛ’의 수직점과 수평획 등 3개 부분을 띄어서 표현하였다, 송시열은 초성 ‘ㅇ’의 위 부분을 지나치게 넓게 벌려 ‘ㄴ’ 자 획형으로 보일 정도이다.<sup>16</sup> 이는 많이 흘러 쓸수록 두 번째 획과 ‘ㅛ’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획형이라고 본다. ‘고’와 ‘오’는 가로획이 아주 짧으나 ‘우’를 쓸 때는 김성일, 이동표, 송시열, 김노경은 가로획을 길게 하였다. 이때 ‘ㅇ’ 자획의 획형은 거의 다 ‘△’ 모양이며, 시기에 따른 획형의 차이는 보이지 않으며 비슷하다.

		채무이 1550	김성일 1592	곽주 1590	이동표 1677	송시열 1671	김노경 1791	김정희 1818
사대부 남성	고							
	오							
	우							

도6-사대부 남성 한글서간의 ‘고-오-우’ 자 결구 비교도

16 박정숙, 「조선시대 한글편지 서예미의 변천사적 고찰: 16세기~19세기」, 『서예학 연구』 제26호(2015), 219쪽.

### 3) 음절 종모음합자 ‘경(면,성)-깃(엇)-글(을)-훈’자(도7)

종모음합자 ‘경(면,성)’ 자에서 결구의 차이점은 ‘ㄱ’로 연결될 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대부 남성 7인이 쓴 ‘경’ 자는 각각 개성이 뚜렷한 자형을 보여준다. 문자의 외형을 가로 폭을 좁게 나타낸 김정희 글씨, 가로 폭을 아주 크게 나타낸 김노경 글씨 등 남성이 쓴 외형의 가로 폭 크기가 각각 다르다. 문자의 획의 굵기도 송시열, 김노경은 굵게, 이동표, 김정희는 가늘게, 초성, 중성, 종성의 자모음 획형도 각각 개성 있는 글씨를 볼 수 있다.<sup>17)</sup> 종모음합자 ‘깃’, ‘엇’ 자의 조형에서 7인의 남성이 쓴 ‘깃’, ‘엇’자는 외형의 가로 폭을 아주 크게 나타낸 김성일, 이동표, 김노경의 글씨가 있고, 아주 좁게 나타낸 김정희, 곽주의 글씨가 있다. 3획을 이어서 2획으로 쓴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은 ‘丨’ 획을 좌방향으로 기울이면서 받침 ‘ㄴ’으로 바로 이어져 보이는 현상으로 흘림의 역동성을 볼 수 있다. 김성일의 ‘엇’은 또박또박 썼으나 세 개의 획이 이어지고 있다. 횡모음합자 ‘글’ 자의 조형을 사대부 남성 7인의 ‘글’ 자에서 보면 채무이에서 이동표에 이르기까지 쓴 ‘글’ 자의 종성 ‘ㄹ’을 극히 생략한 획형으로 한자 ‘之’ 자처럼 쓴 공통점이 발견된다. 1700년대의 후반 김노경, 김정희 부자의 ‘글’ 자는 종성 ‘ㄹ’의 형태가 보이고 있다. 이로서 남성들의 서간글씨에서 자모음획, 초중성 합자, 초중종성 합자의 결구를 분석해보았다. 사대부 남성들의 서간서체는 시기에 관계없이 개성이 뚜렷한 필체로 썼고, 한자 필의를 토대로 한글편지를 쓴 것으로 보여진다. 구체적인 모습은 Ⅲ장(사대부 한자-한글 서체의 조형적 관련성)에서 논한다.

---

17 앞의 논문, 222쪽.



		채무이 1550	김성일 1592	곽주 1590	이동표 1677	송시열 1671	김노경 1791	김정희 1818
사대부 남성	경							
	엇·깃	-						
	글							
	훈							

도7-사대부 남성 한글서간의 ‘경(면, 성)-깃(엇)-글(을)-훈’ 자 결구 비교도

### 3. 사대부 남성 한글서간 자모음의 용필

조선시대 사대부 남성 7인이 쓴 한글서간에서의 자모음 용필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비교 분석표로 만들어 보면 도8과 같다

조선시대 사대부 남성이 쓴 한글서간에서의 모음 기본획형인 점, 가로획, 세로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점획은 대부분 사향점으로 표현하였으며, 세로획은 왼쪽으로 서서히 굽어지게 하였다. 정경세는 직획에 가깝게 아래로 내려왔으나 수침을 날카롭게 하여 부드럽게 빼고 있다. 가로획은 7인 모두 우상향으로 표현하였다. 그 중 추사의 가로획이 가장 우상향이다. 기본 자음 획형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에서 사대부 남성의 용필 특징은 다음과 같다. ‘ㄱ’은 ‘ㄱ’모음과 만났을 때 모두 훈민정음 언해본의 자형을 견지하였다. 18세기 김노경, 김정희 부자는 ‘ㄱ’의 세로획이 좌측으로 굽어지지만 궁체의 형태와는 다르다. ‘ㄴ’이 ‘ㄱ’과 만났을 때는 언해본의 모습보

필사 자	사대부 남성 서간의 기본획 비교						
	김성일	정경세	곽주	이동표	송시열	김노경	김정희
기본 획형							
	ㅎ	스	르	느	ㅎ		ㅎ
	이	니	이	이	이	지	이-
	든	보	그	드므	드	모	그
기본 자음							
	가	기	가	기	가	겨	가
	나	니	나	나	네	니	나
	물(리)	늘(리)	울(리)	열(리)	을(리)	을(리)	을(리)
	마	마	문	므	마	놈	모
	시	시	사	시	시	시	시
	아	안	아	이	안	아	인

도8-사대부 남성의 한글서간 자모음 분석 비교도

다 더 우상향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종성 ‘ㄹ’획은 한자 ‘之’의 행서와 유사하다. 3획을 뭉치기도 하고, 풀어내기도 하면서 나타내는 종성 ‘ㄹ’의 변화는 왕희지 난정서 ‘之’의 변화에 못지않다. 정경세, 송시열 김노경, 김정희는 ‘ㄹ’의 형태가 드러나지만, 이동표의 ‘ㄹ’은 1획으로 표현되었다. ‘ㄱ’획은 한자 ‘口’자의 형태를 취했으며 ‘ㅅ’의 변화 또한 한자 ‘人’의 형태와 유사하다. 한자에는 없는 ‘ㅇ’은 7인 모두 삼각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원의 형태인 궁체와는 다르게 표현되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한글서간 글씨의 장법, 결구, 용필의 특징을 살펴보면 장법의 행별 축선은 궁체와 같이 오른쪽 세로획을 맞춘 것이 아니라 글자의 중앙으로 열을 맞추고 있다. 배행·배자 방법에서도 자모음의 획형을 생략함으로써 연결성을 살려 쓴 것으로 필단의련(筆斷意連)의 필의가 보이며, 용필법의 중봉과 편봉, 운필법의 역입평출과 묵법에서 한자의 행서 필법과 유사한 노봉과 장봉을 혼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sup>18</sup>

### Ⅲ. 사대부 한자-한글 서체의 조형적 관련성

















일상적인 서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서간의 서체는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서예작품 서체와 같으므로 서간서체의 특징을 연구하는 것에도 서예 필법 분석 방법에 의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한글과 한자 사이에는 형태의 차이만 있을 뿐 붓을 운용하는 방법은 같아서 한자 자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한글 자형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김성일, 송시열, 김정희의 한자-한글서체를 영자팔획을 기준으로 비교,

18 한자와 한글의 행서필법의 유사성은 Ⅲ장의 도11, 도15, 도19를 통해 알 수 있다.

분석하기로 한다. 서간서체의 분석에서 사대부의 한자-한글 서간을 대상으로 문자 및 점획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관련성을 한자 ‘永’자팔법 중 6법[중점획분류]에 해당하는 획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6법 이외로 탁(啄-왼쪽으로 짧게 후림), 책(磔-오른쪽으로 물결침) 획은 약(掠)획과 책(策)획과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 분석에서 생략하였다.

표2-永字 8法 필법에 의한 기본획 분석 대상표

순	한자 영자 8법 획명	한글 서체 관련 획명	서체 관련 점획
1	측(側: 點)	점	ㅎ ㅈ의 점
2	늑(勒: 平橫·橫畫)	가로획	ㅎ 우의 가로획
3	노(努: 中直·直畫·豎畫)	세로획	부 ㅅ분의 세로획
4	적(擿: 鉤)	갈고리획	니 ㄴ의 세로획
5	책(策: 挑·左挑·斜畫)	오른쪽 위로 뺨침	가의 ㄱ, 의의 가로획
6	약(掠: 撇·長撇·左拂)	왼쪽 긴뺨침	ㅏ(양)의 연결점, ㅑ(시 ㅅ)의 뺨침
7	탁(啄: 拂·短撇 左撇)	왼쪽 짧은 뺨침	ㄱ(가)세로선, ㄴ(위)세로선
8	책(磔: 捺·右捺·波)	오른쪽 아래로 뺨침	ㅈ(지) ㅊ(치)의 끝획 종성 ‘ㅅ’의 끝획

永자 자형		永							
永자팔법 획형	획	측	늑	노	적	책(策)	약(掠)	탁(啄)	책(磔)
	한자획								
	한글획								

도9-추사의 永자 팔법도<sup>19)</sup>

19 추사 ‘永’ 字 발취: 「추사서체자전」, 『월간 서예문인화』, 170쪽.

표3-조선시대 3대 명필가 서간문의 장법 특징 분석대상 개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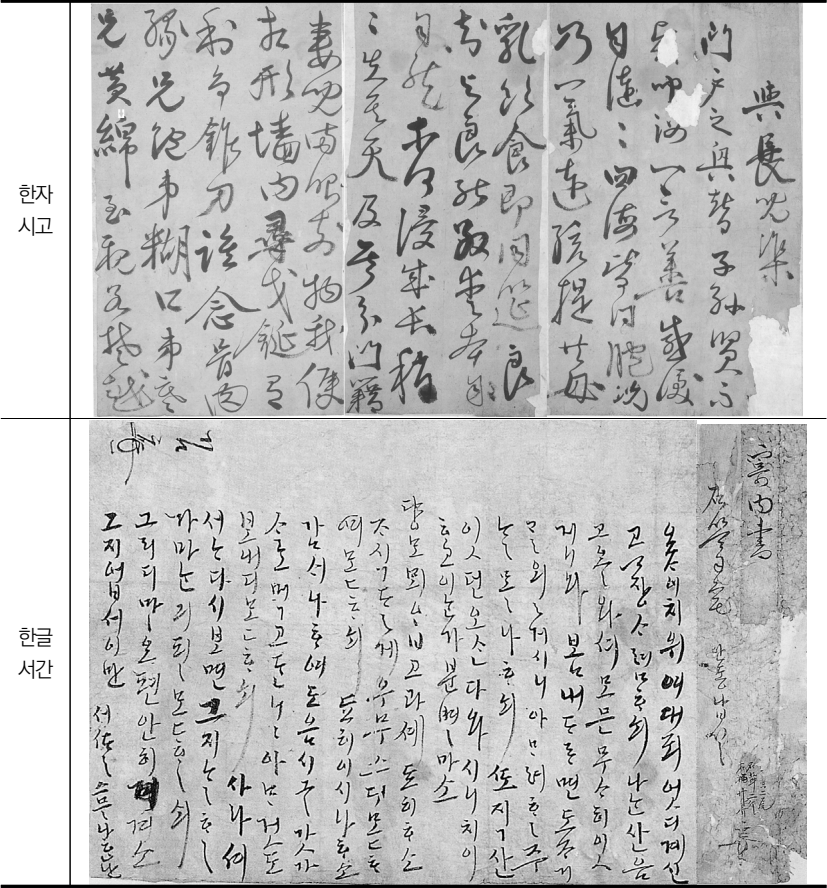
시대	필사자	필사시기	구분	수신자	서체	배열 형식	배열수	비고
16 세기	김성일 1538~ 1593	1586년 49세	한자시고	아들에게	초서	세로	13행	-
		1592년 12월 24일 55세	한글서간	부인에게	흘림	세로	32.0×38.0cm 18행	-
17세기	송시열 1607~ 1689	1685년 78세	한자서간	증손 송일원	초서	세로	24×15cm 7행	도판 1점 첨부
		1679년 2월 5일 73세	한글서간	제자 미망인	초서	세로	29.5×62.3cm 32행	도판 후반부 19행
18, 19 세기	김정희 1786~ 1856	1827년 11월 42세	한자서간	아우에게	초서	세로	22×47.5cm 19행	-
		1818년 7월 晦일 33세	한글서간	부인에게	흘림	세로	24×44.3cm 30행	봉투 24.2×5.4

1. 김성일 한자-한글 문자의 점획별 특징

한자시고(도10, 위)의 수신자 장자 김집(金集, 1558~1631)은 효성이 지극하고 부모는 물론 외조모와 이모도 지성으로 모셨다고 한다. 특히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하여 나주 목사에서 별급한 여종 2명을 큰아들에게 주었는데, 장자 집(集)은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청하면서 굳이 사양하였으므로 학봉은 아들의 우애에 감동하여 술 취한 가운데 붓을 가져오라고 하여 즉석에서 이 시를 지어 아들에게 주었던 것인데 감동에 따른 취기 때문인지 필치가 매우 활달하다.<sup>20</sup>

20 『韓國簡札資料選集 12: 安東 金溪 義城金氏 鶴峯(金誠一)宗宅篇』(韓國學中央研究院,

한글서간(도10, 아래)은 선조 25년(1592년) 12월 24일 김성일이 경상우도 감사(慶尙右道監司)로 경상도 산음현에 있을 때 부인 안동 권씨에게 보낸 한글편지이다. 곁봉에 적혀 있는 기내서 우감사택(寄內書 右監司宅) ‘안동 납실’은 “안동 납실에 있는 경상우도 감사택의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이며, 여기서 ‘납실’은 현재 안동시 임동면(臨東面) 원곡(猿谷)으로, 학봉이



도10-김성일 필사 한자시고-한글서간의 문장 격식 및 배열도

2008), 17쪽

훈례 이후 분가하여 살던 곳이다.<sup>21</sup> 당시 학봉이 한글편지 쓸 때의 상황은 전쟁 중 추위와 병마에 시달리던 시기라 결코 필법( 필法)을 의식한 바는 아니었을 테지만, 평생 축적된 그의 한자 필재와 예술적 감각은 그의 한글서예에 그대로 이입되어 조선 전기 최고의 한글서간 작품을 탄생시켰다. 학봉의 잠재된 예술적 필력이 그대로 발현될 수 있었던 점에서 그의 한자서체와 한글서체와의 관련성을 찾아보기로 한다.

구분	획	측(側)	늑(勒)	노(努)	적(趺)	책(策)	약(掠)
		점	가로획	세로획	꺾어올림	오른쪽배침	왼쪽배침
한자 시고	획						
	문자						
	행	之	二	耶	岡	換	但
한글 서간	획						
	문자						
	행	ㅎ	음	시	고	위	서

도11-김성일 한자-한글 문자 및 점획 분석 비교도

21 박정숙, 『조선의 한글편지』(도서출판다운샘, 2017), 124쪽.

김성일의 한글서간과 한자시고(詩稿)의 서체적 관련성을 비교 분석함에 있어서 한글서체의 기본획형 명칭이 아직 표준 공인화된 것이 없으므로 한자서체의 기본인 ‘永字八法’을 적용하였다. 영자 8법의 8종 점획 요소 중 한글서체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6종(표2)을 택하여 종류별로 한자-한글 문자를 택하여 획법의 표현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1) 측(側)점 관련 한자-한글 획형

일반적으로 한자-한글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측점 특히 사향점에 해당되는 문자를 택하여 비교하였다. 사향방향의 좌측상단을 뾰족하게 나타낸 측점은 김성일의 서간에 쓰인 한자 ‘之’ 자의 첫 점과 한글에서 ‘ㅎ’의 첫 점을 대비하였다. 우선 외형이 사향방향으로 유사하고 처음부분이 뾰족한 첨형(尖形)이며, 끝부분이 모난 방형(方形)으로 유사하다. 이외 ‘之 家’ 자 등의 첫 점과 한글의 ‘추, 후’ 자 등의 점형이 서로 유사한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한자-한글의 측점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2) 늑(勒)획 관련 한자-한글 획형

일반적으로 늑획은 가로획을 지칭하는데 문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획으로 행초서[한글흘림체]는 대부분 우상향이다. 한자서간의 ‘二’ 자의 아래 가로획형과 한글서간의 ‘음’ 자 가운데 가로획형을 비교해 보면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한자-한글 가로획[늑획]의 기필부분에서는 힘차고 강하게 기필한 빠른 필속의 운필 흔적을 찾아 볼 수 있고, 송필부분에서의 운필방향은 우상향이며 수필부분은 강하면서도 탄력 있게 멈춘 획형에서 두 늑획의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다.

‘一’획은 10행의 ‘스’와 같이 위를 향하는 곡선 형태가 있고, 12행의 ‘도’와 같이 아래를 향하는 곡선의 형태가 있다. 물론 초성에서 연결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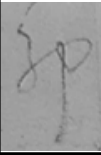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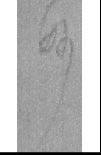


10행-7	12행-6	3행-5	3행-6	17행-1
				

도12-김성일 한글서체 ‘ㅡ’ 획의 다양성 비교도

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다양함은 작가의 심중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위를 향하는 곡선의 ‘ㅡ’획은 기필의 모양이 역입과 노봉을 통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3행의 ‘모’, ‘문’, 17행의 ‘그’의 ‘ㅡ’획을 통해 알 수 있다. 김성일의 한글서간에서 모음의 가로획(능획)을 보면 한글과 한자의 기필부분이 매우 유사하며, 한글은 방향성이 매우 다양하게 구사하였음을 볼 수 있다.(도12)

### (3) 노(努)획 관련 한자-한글 획형의 관련성(도13)

노획은 세로획과 대비된 명칭으로 능획과 더불어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동획이라 할 수 있다. 노획은 대체로 전, 예, 해서체에서는 직선을 유지하면서도 곧지 않게 쓰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학봉의 서간에 쓰인 행, 초서체에서는 대부분 아래 끝부분을 왼쪽 방향으로 꺾어 올리거나 곡선형으로 휘게 표현하는 것이 한자나 한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김성일의 한자-한글 서간체의 ‘耶’ 자의 9번째 획과 ‘시’ 자의 ‘丨’ 세로획 꺾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거의 같은 획형으로 표현했다. 두 세로획은 기필 부분이 약하며, 송필 부분은 점점 강하게, 수필 부분은 더욱 굵게 약간의 곡선형으로 끝맺음을 했다. 학봉의 ‘丨’획은 ‘되’의 세로획처럼 곡획(曲畫)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가’의 세로획처럼 직획(直畫)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는데, ‘耶’나 ‘訃’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글 ‘가’와 한자 ‘訃’의 연결된 형태와,

17행 '디'	耶	7행 '이'	行	2행 '뇌'	好	16행 '쇠'	弟
							

도13-김성일 한글-한자 서체 'ㅣ'획의 다양성 비교도

한글 '디'와 '汁'의 세로로 연결되는 획에서 필세회고의 필법도 유사하다. 김성일의 한글 글씨를 보면 자연스럽게 글을 써내려갔음에도 그 안에는 수많은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ㅣ'획은 크게 3가지 형태를 보이는데, 17행의 '디'와 같이 똑바로 내려오는 획이 있고, 7행의 '이', 2행의 '뇌'와 같이 처음에는 똑바로 내려오다가 2/3지점부터 왼쪽으로 휘어지는 획이 있다. 또한 16행의 '쇠'와 같이 왼쪽으로 휘어지는 곡선의 형태를 지닌 모습으로 모음의 세로획 끝부분에서 좌측으로 살짝 꺾어올린 모습은 한글과 한자의 획형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 (4) 적(趺)획 관련 한자-한글 획형

적획은 갈고리형으로 부드럽게 꺾거나 각지게 꺾어 나타낸 모습이 한자나 한글에서 유사함이 보인다. 김성일의 한자-한글서간의 '罍'자와 '고'자의 꺾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거의 같은 획형으로 표현했다. 두 갈고리획은 강하게 꺾어 올림이 같다. 초성 'ㄱ'과 '刀'자에서는 짧은 적획을 볼 수 있지만 자음의 'ㄱ'과 'ㄴ'에서는 가로획과 세로획이 이어지는 전절 부분도 용필법이 유사하다. 김성일 한글서간 '쇠'의 모음 'ㅣ'는 장봉으로 기필하여 길게 시원스럽게 내려오다가 수필에서 형세를 집약하여 적획으로 나타내었다. 질박하면서도 담백하며 물 흐르듯 감정을 필획에 담아 머뭇거림이 없어, 필세가 자연스럽다.

### (5) 책(策)획 관련 한자-한글 획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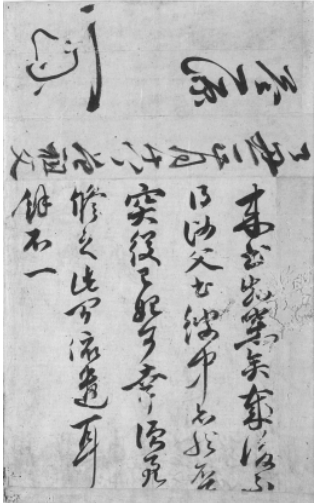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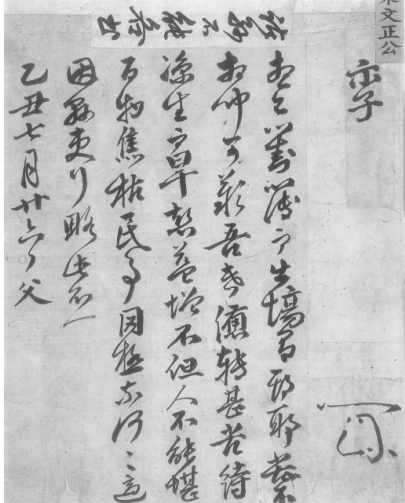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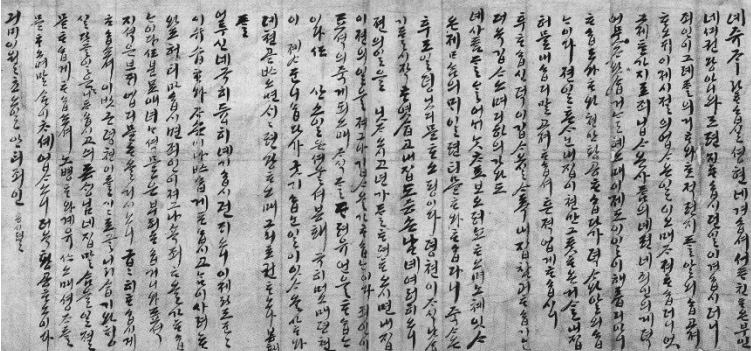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책획은 오른쪽 빼침획을 지칭하는데 책(策: 挑·左挑·斜畫)은 짧은 빼침획은 채찍 드는 듯 치켜 올리듯 한다고 하였다. 학봉의 책획은 한글서간 중 ‘ㄴ’의 세 번째 획에 해당되는 획으로 멈추었다 우상향으로 치켜 길게 빼쳐 올린다. 한자서간의 ‘換’의 여섯 번째 획과 한글서간의 ‘위’의 두 번째 획을 비교해 보면 유사함을 찾아볼 수 있다. 한자-한글 빼침획[책획]의 기필부분은 강하고 수필부분은 빠른 운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 (6) 약(掠)획 관련 한자-한글 획형

일반적으로 약획은 왼쪽 빼침획을 지칭하는데 약(掠: 撇·長撇·左拂)은 왼쪽 긴 빼침획으로 왼쪽으로 약간 휘어지게 길게 빼쳐서 끝부분은 날카롭게 표현하는 획이다. 한글문자 중에 ‘ㅅ’의 첫 획에 해당되는 획으로 행초서[한글흘림체]는 왼쪽으로 길게 빠친다. 한자서간 ‘但’자 ‘亅’의 첫 획과 한글서간 ‘ㅅ’의 첫 획을 비교해 보면 필세나 필획의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한자-한글 빼침획[약획]의 기필부분은 힘차고 강하면서도 빠른 필속의 운필로 강하게 찍어 날카롭게 빠치기도 하고 길고 부드럽게 휘어지기도 하는 등 다양하다

## 2. 송시열 한자-한글 문자의 점획별 특징

우암은 비교적 많은 목적을 남겼는데 한자서간(도14, 위)은 1685년 1월에 장증손 일원(1664~1712)에게 보낸 서간이다. 새해를 맞아 아들의 소식을 듣지 못하여 답답한 심정을 말하고 있다. 우암은 출가하는 딸에게 한글로 ‘계녀서’를 써주는 등 여성에 관련된 한글필적이 많다. 기록상으로 한글서

한자 서간		
	60. 송시열, 1685년 來書知悉, 우옹간첩(尤翁簡帖)	85. 송시열, 1685년 서간. 유현수묵첩(儒賢水墨帖)
한글 서간 후반 부 19 행		

도14- 송시열 필사 한자-한글서간의 문장 격식 및 배열도

간은 8건<sup>22</sup>이나 남아 있다. 우암의 집안에 내려온 한글서간에는 조선 선비의 엄격함 뒤에 숨어있는 가족애를 엿볼 수 있으며, 이들의 소통방식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sup>23</sup>

22 김일근, 『언간의 연구』(건국대학교 출판부, 1981), P68.

현재 전해지고 있는 실물편지는 6건<sup>24</sup>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에서 송시열이 73세 노년기에 쓴 이 서간은 제2차 예송에서 패배 후 유배되었다가 1680년 경신환국으로 해배되기 바로 전해인 1679년 2월 5일에 제자 정보연의 미망인 여흥 민씨에게 보낸 서간이다. 내용은 제자의 아들인 '덩천(鄭澣)'의 교육 문제와 제자 정보연<sup>25</sup>의 산소 문제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암의 한글서간(도14, 아래)은 그의 한문 목적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자간의 강한 연결과 필맥의 흐름이 유려하다. 운필과 자형, 자간과 행간 등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러워 소박하며 절주미가 뛰어나다. 특히 한자서간과 한글서간을 비교해보면 자형은 유사하나 어느 획 하나 중복되거나 동일 형태가 없어 우암서체의 변화무쌍한 풍격을 볼 수 있다.

우암의 한자 필법은 그의 한글서예에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다만 한자서간은 평소에 늘 써왔기 때문에 깊이 있고 근엄하며 자유자재로 운필하는 등 필력이 두드러지고, 한글서간에서는 섬세하면서도 부드럽고 유려함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서와 초서의 필법에 뿌리를 두면서 엄정하고 단아한 필획으로 조선시대 사대부 특유의 한글서풍을 보여주고 있다.

우암의 한글서간과 한자서간의 서체적 관련성을 비교 분석함에 있어서 비교대상 획형과 분석 방법은 학봉의 경우와 같다.

23 박정숙, 「양송체, 글씨로 보는 우암, 동춘」(2018).

24 ① 장손 은석의 처에게 보낸 편지, ② 애제자 정보연의 부인 민씨에게 보낸 편지, ③, ④ 영암의 조씨 집안으로 출가한 종손녀와 사위에게 보낸 편지 2건, ⑤ 손자며느리(송은석의 재취 평산 신씨)에게 대필시킨 1편이 있고, 그 외 1건이 더 있다. 박정숙, 『조선의 한글편지』(도서출판 다운샘, 2017) 참조.

25 정보연(鄭普演, 1637~1660)의 증조부는 송강 정철(鄭澈)이고, 조부는 정종명(鄭宗溟)이며, 부친은 진선(進善) 정양(鄭養)이다.

구분	획	측(側)	늑(勒)	노(努)	적(楮)	책(策)	약(掠)
		점	가로획	세로획	꺾어올림	오른쪽삐침	왼쪽삐침
한자 서간	획						
	문자						
	행	永 54-7행	吾 85-2행	中 60-2행	永 54-7행	耳 60-4행	仲 85-2행
한글 서간	획						
	문자						
	행	헉 7행	그 5행	니 31행	다 14행	의 11행	시 9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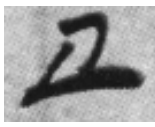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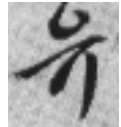
도15-송시열 한자-한글 문자 및 점획 분석 비교도

#### (1) 측점 관련 한자-한글 획형

사향방향의 좌측상단을 뾰족하게 나타낸 측점은 한자에서 ‘永’ 자의 첫 점과 한글에서 ‘헉’의 첫 점이 유사하였다. 우선 사향방향이 유사하고 기필부분이 뾰족한 첨형(尖形)으로 서로 유사하며, 끝부분이 둥근 둔형(鈍形)으로 유사하다.

#### (2) 늑획 관련 한자-한글 획형

우암 한자서간의 ‘吾’ 자의 ‘五’ 아래 가로획형과 한글서간의 ‘그’ 자의

오-14행-9	도-2행-8	고-24-16	쥬-1행-2	유-1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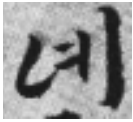




도16-송시열 한글 ‘ㄴ’획의 다양성 비교도

아래 가로획형을 비교해 보면 그 유사함이 드러난다. 한자-한글 가로획[능획]에서 우암은 강하면서도 노필(露筆)의 둔탁한 면도 있지만 그의 진솔하면서도 강한 성품이 ‘능획’ 속에 숨어져 있다. ‘耳’ 자는 단순한 몇 획이지만 우암의 필재(筆才)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자유분방한 운필과 필획의 흐름, 마지막 수필(收筆)의 절묘한 비백과 탄력적인 필세, 묵직한 끝맺음에서 초서 간찰의 멋스러움과 더불어 우암의 호방하면서도 강직한 성품을 읽을 수 있다.

가로획 ‘一’은 대체적으로 가운데 부분이 가늘고 우상향하는 점에서는 한자와 한글이 같다. 하지만 한자획과 달리 날카롭게 우상향하면서 강하고 짧게 표현된 ‘오’(14행-9), ‘도’(2행-8), 역입평출하여 회봉한 ‘고’(24행-16), 위에서 이어져서 기필된 부분부터 역입하고 편안하게 노봉이 된 ‘쥬’(1행-2), 가늘고 부드럽게 우상향한 ‘유’(18-14) 등 한 획도 같지 않은 다양한 한글 가로획을 볼 수 있다.(도16)

### (3) 노획(努畫) 관련 한자-한글 획형

우암의 한자-한글서간의 ‘中’ 자와 ‘니’ 자의 능획(세로획)에서도 왼쪽방향으로 휘어지는 한자 행초서의 특성이 발견되는데 한자-한글이 거의 같은 획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두 노획은 기필부분이 굵고 강하며, 송필부분은 점점 가늘고 유연하게, 수필부분은 더욱 가늘게 약간의 곡선형으로 뾰족하게 끝맺음을 하였다.

'네'(1-1)	'이'(19-10)	'시'(4-6)	'죄'(5-7)	니(2-21)
				

도17-송시열 한글서간의 'ㅣ'의 다양성 비교도

우암 세로획 'ㅣ'의 힘찬 필력은 전체적으로 강하면서도 안정감이 있으며 어느 한 획도 같지 않게 변화를 주었다. '네'의 세로획 기필은 찍어 내리면서 직획으로 내려왔지만 적획으로 왼방향을 향하였고, '이'는 다음 연결을 위해 시원하게 기울여 쓴 세로획의 유연함도 있다. 우암의 능숙한 한자서에 필법을 토대로 서사한 세로획의 기울기 표현 등에서 한자서간에서 볼 수 있는 필력이 그대로 드러나 '시, 죄, 니' 등 세로획의 수필의 방향은 우방향이지만 유달리 'ㅣ'획을 힘차게 내려 그은 필획에서 우암의 강직한 선비정신과 아울러 감성 충만한 예술적 서사풍격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도17)

#### (4) 적획 관련 한자-한글 획형

적획은 갈고리형으로 부드럽게 꺾거나 각지게 꺾어 나타낸 형태가 한자나 한글에서 비슷하다. 우암은 한자-한글서간체의 '永'자와 '다'자의 수필에서 거의 같은 획형으로 처리했다. 한자의 '永'자의 적획은 약간 왼쪽으로 꺾어 올리려는 듯 멈추었고 한글 '다'에서 'ㄷ'의 적획은 부드럽게 왼쪽으로 구부렸다. 우암의 한글서체에는 추사의 논서법에 해당되는 적획이 사용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우암은 가로획과 세로획이 대담한 직(直)획으로 담담하게 표현하여 굳세고 웅건한 그의 직(直)사상<sup>26</sup>이 한글서예에서도 엿보이고 있다.

26 조종식, 「우암 송시열의 직사상적 서예미학」, 『서예학연구』 제12호(2008), 83쪽.



### (5) 책획 관련 한자-한글 획형

일반적으로 책획은 오른쪽 우상향획을 지칭하는데 한글문자 중에 ‘ㄱ’의 짧은 가로획에 해당되는 획으로 행초서[한글흘림체]는 우상향으로 길게 빼쳐 올린다. 한자서간의 ‘耳’ 자의 다섯 번째 획과 한글서간 ‘의’의 두 번째 획과 비교해 보면 유사함이 드러난다. 한자-한글 빼침획[책획]의 기필 부분은 강하게 찍어 세우면서 우상향으로 빼쳐 올리는 형태를 볼 수 있다.

### (6) 약획 관련 한자-한글 획형

일반적으로 약획은 왼쪽 빼침획을 지칭하는데 한글문자 중에 ‘ㅅ’의 첫 획에 해당되는 획으로 행초서[한글흘림체]는 왼쪽으로 길게 빼친다. 한자서간의 ‘仲’ 자의 ‘亻’의 첫 획과 한글서간의 ‘시’의 첫 획을 비교해 보면 유사함을 찾아볼 수 있다. 한자-한글 빼침획[약획]의 기필의 힘차고 강하게 빠른 필속의 운필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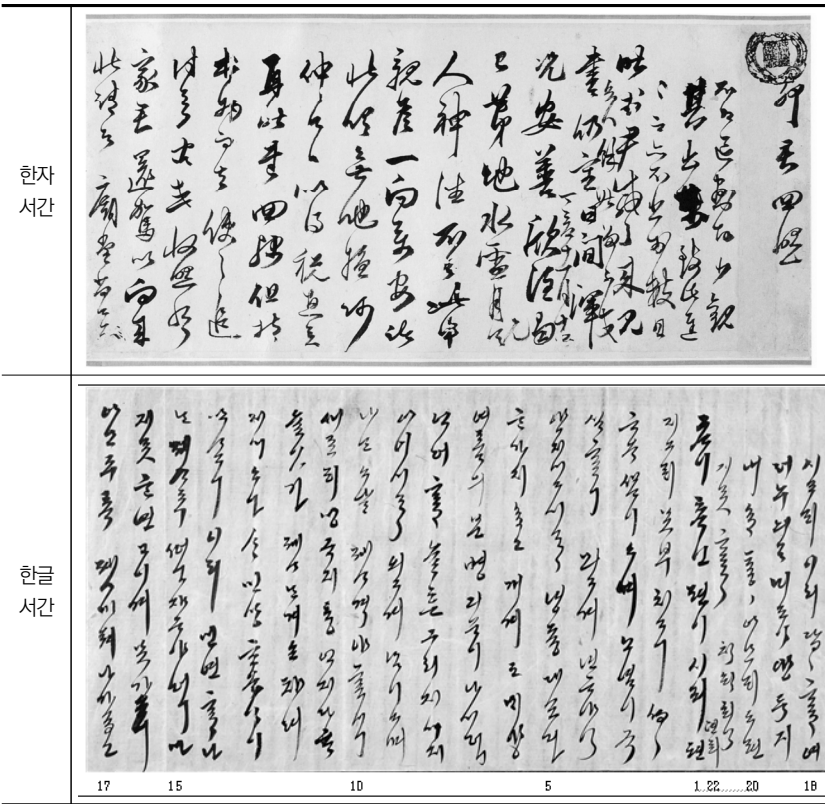
우암은 짧게 혹은 길게 빼침을 처리 하였지만 끝이 뭉툭하고 탄력 있게 마무리하였다.

## 3. 김정희 한자-한글 문자의 점획별 특징


본고에서 비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추사 김정희의 한자서간(도18, 위)은 둘째 동생 김상희에게 보낸 답신이다. 추사 나이 42세 때에 쓴 이 서간은 추사의 일생에서 가장 평탄할 때 쓴 유려한 연면체가 돋보이는 행서 서간작품이다. 부친 김노경의 영향과 왕헌지의 영향을 받았던 시기로 ‘其’ 자, ‘安’ 자, ‘不’ 자, ‘再’ 자에서의 측봉용필은 偏(편)으로서 態(태)를 취하는 勢(세)를 볼 수 있다. 추사의 젊은 시절에 쓴 서간의 대부분은 중봉용필로 썼지만 이 편지에 쓰인 몇 자 안 되는 측봉용필은 추사체의 추형(雛形)을

볼 수 있는 서간작품이다. 이 때 그는 관직에 있으면서 중국의 학자들과 끊임없이 서신을 주고받으며 학문을 연마했다. 추사의 생부 김노경도 병조 판서 등을 역임하고 두 동생 또한 벼슬을 했으며 생가와 양가 모두 화목한 시절이었다. 부친의 안부를 걱정하는 추사의 마음이 역력히 나타나며, 당시 추사의 삶의 자취를 읽을 수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추사의 한글서간은 총 40건으로, 부인 예안이씨에게 보낸 편지가 38건, 며느리 풍산 임씨에게 보낸 편지가 2건이다. 부인에게 보낸 38건에는 유배 생활, 병을 앓고 있던 부인에 대한 걱정, 손자의 출생,



도18- 김정희 필사 한자-한글서간의 문장 격식 및 배열도

구분	획	측(側)	늑(勒)	노(努)	적(植)	책(策)	약(掠)
		점	가로획	세로획	꺾어올림	오른쪽비침	왼쪽 비침
한자 서간	획						
	문자						
	자	祝	五	中	行	換	何
한글 서간	획						
	문자						
	자	ㅎ	드	ㅅ	ㄱ	ㅋ	ㅈ

도19- 김정희 한자-한글서간 문자 및 점획 분석 비교도

\* 위 비교대상 문자는 김정희의 한자는 40대, 한글은 30대 필사서간을 주 대상으로 하되 그 외 시기의 것도 있음.

훈사와 회갑, 제사 등 종손으로서 본가와 처가의 집안일을 챙기는 일, 의복 문제, 노환과 질병 등에 대한 고통 등 일상의 대소사와 삶의 애환이 가감 없이 드러나 있다.

여기에서 비교 대상으로 한 추사 김정희의 한글서간(도 18, 아래)은 추사의 나이 33세 때인 1818년 7월 회일(그믐날)에 서울 장동 본가에 있는 추사가 부친 임지인 대구 감영(봉투: '녕녕 내아 입납'(嶺營內衙入納))에 가 있는 부인에게 쓴 서간이다.

추사의 한글서체는 어느 서간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힘차면서도

부드럽고 자유분방하다. 행·초서의 맛을 그대로 살려낸 유려한 흐름에 그의 한자 필획을 담아내어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추사만의 독특한 한글서체를 구사하고 있다. 특히 편지라는 형식의 특성상 감정이 진솔하게 토로되고 편지를 쓰는 순간의 정서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서예의 생명인 역동적인 아름다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획형의 유려함은 그의 강한 성품과 뛰어난 예술성을 한글에서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추사의 한글서간과 한자서간 두 서체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도19). 비교, 분석 방법은 김성일, 송시열의 경우와 같으며, 『완당전집』에 수록된 그의 영자8법의 서론을 대비시켜 논하였다.

#### (1) 측점 관련 한자-한글 획형

일반적으로 한자-한글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점 특히 사향점에 해당하는 획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추사는 ‘측(側)은 그 붓을 평평하게 해서는 안 되며’<sup>27</sup>라고 하였다. 사향방향의 좌측상단을 뾰족하게 나타낸 측점은 한자에서 ‘축(祝)’자의 첫 점과 한글에서 ‘ㅎ’의 첫 점획을 비교하여 보았다. 우선 외형이 사향방향으로 유사하고 기필부분이 첨형(尖形)으로 서로 유사하고, 끝부분이 둥근 둔형(鈍形)으로 유사하다. ‘突, 家’자 등의 첫 점과 한글의 ‘추, 후’자 등의 점형이 서로 유사한데서 찾아볼 수 있다.

#### (2) 늑획 관련 한자-한글 획형

일반적으로 늑획은 가로획을 지칭하는데 문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획으로 추사의 행초서[한글흘림체] 또한 매우 기울기가 큰 우상향이다. 추사는 ‘늑(勒)은 그 붓을 뒤편에서 안 되며 모름지기 필봉이 먼저가야

27 『阮堂先生全集』 권8, 雜識. “爲點必收責緊而重 爲畫必勒責澀而遲 側不得平其筆”

한다’<sup>28</sup>고 했다. 한자서간 ‘五’ 자의 아래 가로획형과 한글서간의 ‘드’ 자 아래 가로획형을 비교해 보면 유사함을 찾아볼 수 있다. 한자-한글 가로획 [늑획]은 기필부분의 힘차고 예리하면서도 빠른 필속의 운필을 볼 수 있고, 송필부분에서는 우방향으로 직선적이면서도 탄력을 주어 수필부분에서 굽고 강하게 왼쪽으로 꺾어서 연결선을 나타낸 획형에서 두 서체의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추사의 늑획은 날렵하면서도 중봉의 일분필이 내포되어 있다. 한자 ‘五’자의 늑획과 한글 ‘드’ 자의 우상향 가로획에서는 추사의 필재(筆才)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외에도 추사 한글서간(1818년 7월 晦日, 33세 서간)에서 보이는 다양한 늑획에서도 거리낌 없는 자유분방한 운필과 필획의 흐름, 가로획의 수필에서 꺾어 다음 획에 이어지는 절묘한 역입의 탄력적인 필세, 날렵한 연결선은 추사 한글 서간의 멋이다.

### (3) 노획 관련 한자-한글 획형(도20)

추사의 노획은 늑획과 더불어 한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동획이라 할 수 있다. 추사는 ‘노획은 곧은 것만이 좋지 않으니 곧으면 힘을 상실한다’<sup>29</sup>고 했다. 추사는 한자-한글서간의 ‘中’ 자와 ‘시’ 자의 두 세로획은 입필 부분이 굽고 강하며, 송필 부분은 점점 가늘고 유연하면서도 강하게, 수필 부분은 더욱 가늘고 뾰족하게 끝맺음을 했다. 이같이 한자 ‘中’ 자와 한글 ‘시’ 자의 노획에서 유사함을 찾아볼 수 있다. 이밖에 ‘되, 이, 니, 시,’ 자의 세로획에서의 공통점은 직획이 없으며, 휘어지되 끝까지 힘이 서려있다. 이들 모두 추사선생이 말씀하신 노획의 서예 이론과 같은 것으로 분석된다.

28 앞의 자료. “勒不得臥其筆 須筆鋒先行”

29 앞의 자료. “努不宜直 直則失力”

되 1-9	이 1-7	이 18-4	니 2-8	시 1-1	시 6-5

도20-김정희 한글서간의 노획, ‘되, 이, 니, 시’ 자 비교도

#### (4) 적획 관련 한자-한글 획형(도21)

추사는 적(趲: 鉤) 즉 ‘갈고리 모양의 획은 그 필봉을 보존하여 세(勢)를 얻어서 출봉(出鋒)해야 하며 붓을 끌고 내려가 세를 잡아 가슴을 내밀고 서야한다’<sup>30</sup>고 했다. 추사는 곧고 강하게 내려오는 끝에 살짝 적획을 구사하여 멋을 부리고 있다.

추사의 한자-한글서간의 ‘行’자와 ‘니’자 세로획의 꺾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거의 같은 획형으로 표현하여 두 갈고리획은 강하게 꺾어올려 한자 ‘行’자와 한글 ‘니’자의 적획에서도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밖에 추사 한글에서 ‘겨 니 내 릿’의 세로획에서의 적획은 부드럽게 꺾어올렸고 추사의 ‘나’수필은 다(11-11)처럼 거의 필세회고로 끝을 맺는 것이 특징이다.

겨 12-7	니 9-3	내 3-1	릿 7-3	다 11-11

도21-김정희 한글서간의 적획 ‘겨 니 내 릿 다’ 자 비교도

30 앞의 자료. “趲須存其筆鋒 得勢而出 引鋒下行 勢凸胸而立”

#### (5) 책(策)획 관련 한자-한글 획형

일반적으로 책획은 우상향 단획을 지칭하는데 추사는 ‘책(策·挑·左挑·斜畫) 즉 짧은 뺨침획은 채찍 드는 듯 치켜 올리면서 거뒤틀이거나<sup>31</sup> 속으로 들어올리는 듯하게 짧은 획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하였다. 한자 서간 ‘환(換) 자의 세 번째 획과 한글서간 ‘의’의 두 번째 획을 비교해 보면 유사함을 찾아볼 수 있다. 한자-한글 뺨침획[책획]의 기필부분은 살짝 눌렀다가 빠른 필속으로 우상향하는 단획을 찾아볼 수 있다.

#### (6) 약(掠)획 관련 한자-한글 획형

일반적으로 약획은 왼쪽으로 길게 뺨치는 뺨침 획을 지칭하는데 약(掠: 撇·長撇·左拂) 즉 왼쪽 긴 뺨침 획은 왼쪽으로 약간 휘어지게 길게 뺨쳐서 끝부분은 예리하게 표현하여야 한다<sup>32</sup>고 하였다. 한자서간 ‘亅’의 첫 획에 해당되는 획으로 행초서[한글흘림체]는 왼쪽으로 길게 뺨친다. 한자서간 ‘하(何) 자와 ‘亅’의 첫 획과 한글서간 ‘ㅅ’의 첫 획을 비교해 보면 유사함을 찾아볼 수 있다. 한자-한글 뺨침획[약획]의 기필부분의 힘차고 강하면서도 빠른 필속의 운필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추사의 한글은 다음 획으로 이어지는 획을 구사할 땐 역입의 강한 획을 구사하였고, 길게 내려오는 약획을 구사할 때는 날카롭게 뺨침으로 처리하였다.

이상 3인의 자모음 획을 추사의 영자팔법의 이론에 의거하여 한자와 한글 서체의 유사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김성일, 송시열, 김정희 등 조선시대의 저명한 사대부들이 남긴 한글서간의 서체를 구성하고 있는 필획들은 그들의 한자 서간에 구사된 필적과 매우 유사하며, 사대부 남성의 한글서간 글씨는 한자 필법과 필세에 따라 사용된 한글서체이다.

31 앞의 자료. “策須仰策而收”

32 앞의 자료. “掠須筆鋒左出而利”

## IV. 맺음말

---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의 저명한 사대부들이 쓴 한자서간 서체와 그들이 쓴 한글서간 서체의 서체적 관련성을 16세기 김성일, 17세기 송시열, 18세기 김정희 등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명망 높은 사대부이자 서예가의 서간을 대상으로 장법, 결구법, 용필법적 특징을 간단하게 고찰하였으며 그들이 쓴 한자와 한글 서체의 관련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한글서간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1451년에 남성에 의해 먼저 쓰여진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에 미루어 사대부 남성들은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한글서간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정리되어 활용할 수 있는 사대부 한글서간은 약 620여 건에 이르며, 17세기 이후 한글서간이 보편화되면서 뛰어난 조형미와 개성적인 서풍을 볼 수 있다.
2.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한글서간 글씨의 필법은 용필법의 중봉과 편봉, 운필법, 묵법에서 모두 한자의 필법을 따랐으며, 장법의 행별 축선도 오른쪽 세로획을 맞춘 것이 아니라 글자의 중앙으로 열을 맞추었다. 필획 또한 한자의 행서필법과 유사한 노봉(露鋒)과 장봉(藏鋒)을 혼용하였으며 배행·배자 방법이나 결구 방법은 자모음의 획형을 생략함으로써 연결성을 살려 쓴 것으로 분석된다. 사대부 한글서간 가운데 궁체의 필법을 살려 쓴 서간 서체는 없으며 정자체로 쓴 한글서간은 찾아보기 힘들다.
3. 김성일, 송시열, 김정희 3인의 한글서간에 나타나는 장법, 결구, 용필은 한자 서체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여, 한글 서체가 한자 서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4. 한글서간의 장법, 결구, 용필에서 사대부 남성 3인의 배행·배자는 한자 행초서의 필법에 따라 자유분방한 배행·배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연결어휘는 내용에 따르지 않고 호흡에 따라, 혹은 문자의 크기에 따라 또는 붓이 머금고 있는 먹의 양에 따라 연결을 달리하여 소밀-대소 표현이 뛰어났다. 중성 모음 ‘ㅣ’의 세로획의 굵기, 기울기 굵이 등도 필사자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었으며, 남성들이 쓴 ‘ㅏ’는 조선 초기 채무이부터 조선 후기 김정희에 이르기까지 거의 필세회고(筆勢回顧)의 획형을 즐겨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ㄱ’은 한자의 ‘口’, ‘ㄴ’은 한자의 ‘之’의 초서, ‘ㅇ’을 ‘ㄴ’ 등과 같이 한자의 행·초서법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5. 사대부 남성의 한글서간 서체에 대한 장법, 결구, 용필 등의 면밀한 검토는 한글의 서체미를 재확인하고 한글 서체의 다양한 조형적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6. 한글서예의 예술성은 운필 및 엄정한 법도에 맞고 조형적으로도 뛰어난 궁체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500여 년간 쓰여진 남성들의 한글서간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대 한국 서예인들이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한글서간 서체를 잘 활용한다면 한글서예의 예술성을 더 높이 구현할 수 있을 것이며 한글서예의 지평을 더 확장시킬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고전번역원 DB.

조선왕조실록; 『문종실록』, 『성종실록』.

덕천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후손가편 I 『선세언독』. 2004.

『송준길·송시열』.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2006·2007.

『韓國簡札資料選集12: 安東 金溪 義城金氏 鶴峯(金誠一)宗宅篇』. 韓國學中央研究院, 2008.

『완당전집』 제3권, 제5권 권8, 雜識.

『은진송씨 제월당편』 한국간찰자료선집 III. 한국학중앙연구원, 2003.

『추사한글편지』. 예술의 전당 서울서예박물관, 2004.

### 2. 단행본

김일근, 『언간의 연구』. 건국대학교출판부, 1981.

박병천, 『한글서체학연구』. 사회평론, 2014.

박정숙, 「조선 왕들의 정이 넘치는 한글 글씨」. 『조선의 한글편지』, 도서출판다운 샘, 2017.

서경요, 「秋史의 學問과 藝術」. 『書通』, 東方研書會, 1974(秋冬호).

심영환, 『조선시대 고문서 초서체 연구』. (주)소와당, 2008.

유홍준, 『완당평전』 1. 학고재, 2002.

이래호, 『조선시대 언간을 통해 본 사대부가 남성의 삶』 한국학총서3. 역락, 2021.

황문환, 『언간』. 역락, 2015.

황문환 외,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3.

홍윤표, 『국어사자료강독』. 태학사, 2017.

### 3. 논문

박정숙, 「秋史와 石坡 諺簡의 書體美 比較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_\_\_\_\_, 「秋史 金正喜 書簡의 書藝美學的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_\_\_\_\_, 「조선시대 한글편지 서예미의 변천사적 고찰: 16세기~19세기 필사언간을

대상으로」. 『서예학연구』 권26호, 2015, 183~236쪽.

백두현, 「조선시대 한글 보급과 실용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92, 진단학회, 2001, 199~207쪽.

장지훈, 「학봉 김성일의 서예세계」. 『서예학연구』 권35호, 2019, 117~143쪽.

조종식, 「우암 송시열의 직사상적 서예미학」. 『서예학연구』 권12호, 2008, 71~95쪽.

## 국문초록

조선시대 남성 사대부의 한글서간에 나타난 조형미의 특징을 분석 검토하였다. 한자 명필로 알려진 김성일, 송시열, 김정희의 한자-한글서간에서 영자8획을 기준으로 관련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형태의 차이만 있을 뿐 붓을 운용하는 방법은 비슷하여 한자 자형에서 나타나는 서체 특징이 한글 자형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대체로 남성 사대부의 한글서간은 장법, 결구법, 용필법에서 모두 한자의 필법을 따랐으며 획법에서 한자의 행서필법과 유사한 노봉과 장봉을 혼용하였다. 즉 배행·배자는 한자 행초서의 필의를 살려 자유분방한 장법을 취하고 있으며, 연결어휘는 내용에 따르지 않고 호흡에 따라, 혹은 문자의 크기에 따라 또는 붓이 머금고 있는 먹의 양에 따라 연결을 달리하여 소밀-대소 표현이 자연스러웠다. 한글은 필획이나 자형이 간결하여 예술성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간결한 필획과 자형이 주는 공간적 여유로 인해 오히려 필획의 축약이나 신축등의 예술성이 이입되어 멋과 개성이 구현되어 드러남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한글서간 서체를 잘 활용한다면 한글서예의 지평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투고일 2022. 9. 19.

심사일 2022. 10. 22.

게재 확정일 2022. 11. 23.

주제어(keyword) 사대부 한글서간(Gentry Men's Hangeul Correspondence), 사대부 한자서간(Chinese Character Correspondence), 영자8법(Eight Stroke Methods of Yong(永)), 김성일(Kim Seong-il), 송시열(Song Si-yeol), 김정희(Kim Jeong-hui)

## Abstract

### A Study on the Relevance between the Calligraphic Styles of Gentry Men's Correspondence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and Hangeul in the Joseon Dynasty: Focused on the Correspondence Written by Kim Seong-il, Song Si-yeol, and Kim Jeong-hui

Park, Jung-sook

In this paper, I analyzed and reviewed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calligraphic style that appeared in gentry men's Hangeul correspondence in the Joseon Dynasty. The Chinese characters and Hangeul letters written by Kim Seong-il, Song Si-yeol, and Kim Jeong-hui, known as the best calligraphers for Chinese character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Chinese characters and Hangeul letters based on eight strokes of Yong(永), there was only a difference in the form, and the method of using the brush was similar. Moreover, the characteristics of calligraphic styles of Chinese characters are also present in the Hangeul characters. In general, the calligraphic styles of the gentry men's Hangeul letters followed the writing method of Chinese character calligraphy in disposition, structuring, and brush wielding. In terms of strokes, the method of exposing and hiding the tip of the brush was mix-used, which is similar to Chinese character calligraphy. Disposition of the columns and characters takes advantage of the penmanship of the semi-cursive and cursive script of Chinese character calligraphy and adopts a free-spirited method of disposition. Since the connection between letters and strokes depends not on the content but the breath, the size of the letters, and the amount of ink the brush holds, the expression of density and size is natural. Although they say 37Hangeul lacks artistry due to its simple strokes and shapes, due to the spatial leeway provided by the concise strokes and shapes, we can show the artistry such as shortening or expansion of the strokes, and the style and personality are realized and revealed. I believe that we can expand the horizons of Hangeul calligraphy further if we use well the calligraphic styles used in the gentry men's Hangeul letters in the Joseon Dynasty.

